



“불퇴전의 각오로...” 5월 9일 기축년 하안거 결례를 맞아 전국 사찰에서 수행자들이 일제히 안거에 들어간 가운데, 구례 화엄사 선승선원(선원장 현산에서 방부 들인 수좌 21명이 정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안거에는 조계종에서만 100여개 선방에서 2200여 스님들이 방부를 들었다. 박재환 기자 관련기사 2면

사회 라오스 공생청소년센터 건립을 위한

## 희망Dream 꿈 드림

“학교 끝나고 어디 가니? 나는 공생청소년센터 간다! 우리 거기서 만나!” 불교전통이 살아 숨쉬는 동남아시아의 숨은 보배 라오스. 순수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라오스에는 절대 빈곤에 기본적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아이들 74%가 영양 부족으로 학교조차 가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등록금이 없어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쁨을 주기 위해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와 본지는 ‘공생청소년센터(GoodHands YouthCenter Laos)’ 후원 캠페인 ‘희망Dream 꿈드림’을 전개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 라오스 싸이타니구 지역 3000여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세요.

- 주 최 : (사)지구촌공생회, 현대불교신문사
- 주 관 : (사)지구촌공생회
- 기 간 : 2009년 5월 13일 ~ 8월 31개월간
- 모 금 액 : 3000만원 목표(1구좌 1만원)
- 후원계좌 : 농협 170341-51-015696 (사)지구촌공생회
- 문 의 : 지구촌공생회 02)455-9596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00

법구경  
올바른 내 마음이 내게 주는 사랑은 부모와 연인 친구의 사랑보다 넓고 크나니...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유공은 마음으로 친한 공양물만으로는 능인향당  
향 · 조각 · 공양물  
본사 02)3663-6777  
(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직영매장)

복원 및 소장품으로 현대가 가능하며 큰소금 및 염색 주문제작이 가능합니다.  
문의 (02)722-1850

기축년(윤년)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054)655-1011, 011-336-4665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문사

얼대피일 두리야 전문 보이차, 각종 차음, 생활 도자기  
창다원 031)882-1357 전국 직점 배송

## ‘무소유’ 이제 실천하자

## 조계종 ‘사유재산 중단 귀속’ 입법 예고 사후 증여 형식, 홍보·처벌조항 등 과제



▶12 법연 스님



▶15 해남 스님



▶4 중삼 스님

3월 6일, 서울 조계사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한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의장 진오)는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창립법회 시간에 맞춰 조계사 극락전에 하나들 모여든 스님 40여 명의 앞에는 종이 2장씩 놓였고, 스님들은 종이에 무언가를 정성스럽게 적기 시작했다. 한 장은 세상을 떠난 뒤 장기를 기증한다는 장기기증 서약서였고, 다른 한 장은 사후에 전 재산을 중단에 환원한다는 유언장이었다.

유언장을 쓰는 스님들의 모습에 세상이 떠들썩했다. 마스크를 스님들이 장기기증 서약서와 유언장 쓰는 모습을 보도하며, 종교인의 본분을 되새김 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것은 대중결사체를 구성한 법랍 20~30년의 중진스님들의 커리어가 아니라 그동안 허공의 메아리와도 같던 무소유(無所有)를 실천해 보겠다는 다짐 때문이었다.

그날 낭독된 결사선언문에서 스님들은 “중생의 고통을 치유해야 할 한국불교는 출가 수행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진정한 승가공동체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는 흐려졌다”고 비판

했다. 스님들의 지적처럼 중생의 고통을 치유해야 할 출가 수행자들 가운데는 환속·제직·사망하면서 개인명의 재산이 본인이나 직계가족, 친척들에게 귀속되면서 중단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삼보정재를 유실케 한 경우도 많았다. 출가수행 중 취득한 재산이라도 법적인 문제에 걸려 중단은 강 건너 불 보듯 속수무책이었다.

부처님 당시, 출가수행자들에게는 옷 세벌에 발우 하나를 뜻하는 ‘삼의 일발(三衣一鉢)’ 또는 ‘육물(六物)’의 소유만이 허락된 무소유에 가까운 생활이었다.

육물은 세벌의 옷[안타(下衣)·올다라승(上衣)·승가리(大衣)]과 발우, 깔고 앉는 방석과 물을 길러 먹는 주머니(녹수방)를 가리킨다. 시간이 흐르며 생존을 위해 기본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조금 더 허용됐지만, 사타(捨離)해서 계율에서 허락된 이상의 물품을 소유하면 그것들을 4인 이상의 도반들 앞에 내놓고 참회해야 했다.

부처님 당시처럼 무소유를 실천하고, 삼보정재의 유실을 막고자 2007년 9월, 제174회 조계종 중앙총회

에서는 승려법 제30조 2항에 ‘사유재산의 중단귀속’을 성문화했으나, 지금까지 이를 뒷받침할 법령이 제정되지 못한 채 유명무실했다.

종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2년여 만에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승려사유재산의 중단 귀속에 관한 명(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3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조계종 스님들은 구족계 수계시를 비롯해 10년마다 있는 분한신고 시, 주지 임명 시, 각급 고시응시 신청 시 등 수시로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중단 출연에 관한 유언장과 사후증여계약을 제출하게 된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 박중화 팀장은 “절차와 법률적 부분을 고심하다보니 늦은 감이 없지 않다”며 “의견수렴 후 총무원회의를 거쳐 바로 시행 예정”이라 말했다.

민법상 스님들이 입적할 경우 친족들이 사유재산에 대한 우선권을 갖고 있어 이를 무리 없이 중단에 귀속시키려는 절차 마련에 시간이 걸렸다는 해명이다.

금주 24면 발행합니다

승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던 중앙총회의원 법진 스님은 “출가수행자에게 무소유는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 사유재산의 귀속에 관한 제정안이 정착되려면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다소 내용이 미비하다라도 이번 제정안을 계기로 차후에 보완하면서 제정안을 관철시켰던 법진의 정신만은 지켜나가자”고 환영했다.

스님의 우려처럼 사유재산의 중단 귀속 제도가 정착되려면 갈 길이 멀다. 당장 개정안이 총회에서 통과될 때 귀속된 사유재산을 스님들의 노후복지와 교육기금으로 사용하고자 했으나, 승려노후복지법이 통과돼 귀속된 단위를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은 큰 결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스님들이 소유욕을 떨치지 못하는 것은 부실한 노후대책의 영향이 크다’며 “사유재산 중단 귀속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 중령 시행에 맞춰 6월 총회에서 승려노후복지법이 통과돼 귀속을 갖출 것”이라는 어느 전문가의 지적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사유재산 귀속에 관한 약정서 작성을 하지 않을 시 패널티를 주는 처벌조항 등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사유재산에 대한 사찰 관리자의 전횡이나 입의 사용, 기타 입의 증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문제로 지적됐다.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편법적으로 중단 귀속을 회피하는 점 등도 고려해볼 만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려사유재산의 중단 귀속에 관한 명’이 중단과 스님을 비롯해 불교계에 가져다 주는 이점은 크다.

사유재산의 귀속으로 중단에 형성되는 재산은 스님들의 노후와 교육에 쓰이게 된다. 또 일부 스님들이 사찰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오해가 불식되면서 스님과 신도간의 불신의 벽이 허물어지고 한층 더 깊은 신뢰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무소유의 삶을 원칙으로 살아가는 수행자의 출가정신을 의무조항으로 성문화한 것은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일 호기라는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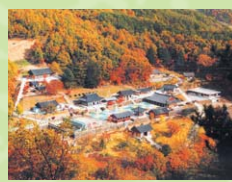
승려사유재산의 중단 귀속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둔 지금, 무소유의 제도화가 생활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조동섭 기자

용문사 윤장대 운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윤장대(보물 제68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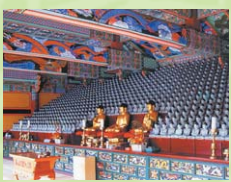
용문사 전경



용문사 교지(보물 제729호)



용문사 천불전



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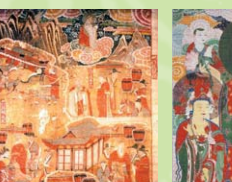
용문사 만동불사



성보박물관



팔상탱(보물 제1330호)



영산회괘불탱(보물 제1445호)



### 기축년(윤년)!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 윤장대를 돌러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 목각 삼존불, 세조의 교지, 괘불탱, 팔상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윤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롭고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기가 힘듭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윤장대를 돌리시어 업장소멸 하시고 사업성취, 병자쾌차, 학업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용문사에서 5분 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전용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보문사, 장안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명봉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탕없는 공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돌리시어 각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바 모든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용문사 오시는 길

- 버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 (06:10-6: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 20분
- 승용차(서울) : ①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 IC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 IC → 중부내륙 고속도로(충주김천방향) → 점촌 - 함창 IC
- 승용차(부산) :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 IC
- 승용차(대구) : 중앙고속도로 → 인동 → 예천 IC

삼사순례도

